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식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박지성 복귀 후 첫 선발 출전

넘치는 활력... 팀내 최고의 활약

“아직 보여줄 것 많습니다” 소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선발로 나온 '산소탱크'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올 시즌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맹활약을 예고했다.

박지성은 2일 오전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끝난 버밍엄시티와 2007-2008 프리미어리그 21차전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팀의 1-0 승리에 기여한 뒤 인터뷰에서 “재활을 하면서 선발로 뛰기를 기다려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기쁘다”고 복귀 후 첫 선발 출전 소감을 밝혔다.

박지성은 그러나 “상당히 오랜만에 풀아웃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경기력을 100%로 끌어올리지 못했음을 전했다.

박지성은 이날 종종 골 욕심을 드러내며 왕성한 움직임 속에 상대 진영 깊숙히 침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볼 터치와 킥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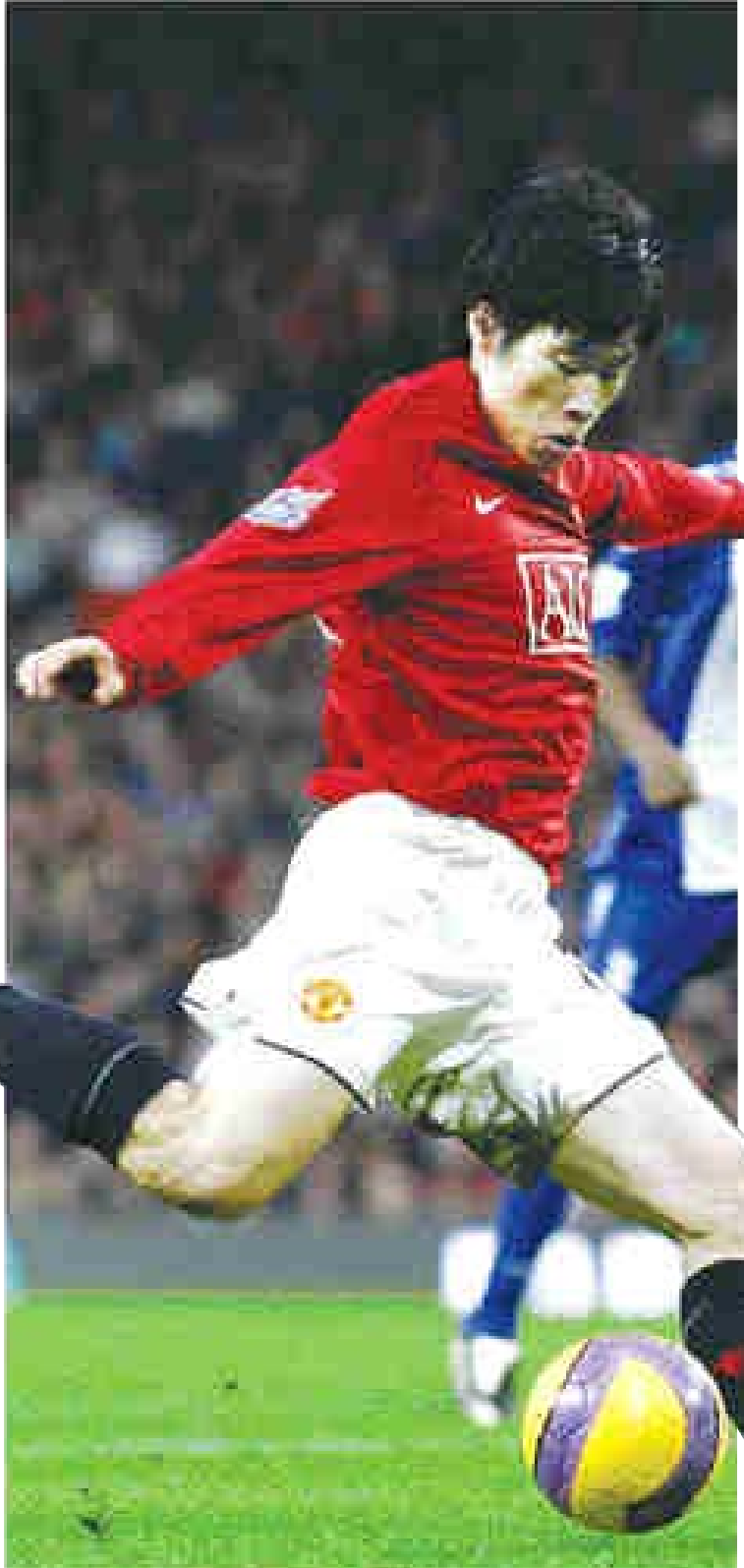
그는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 몸 상태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만큼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박지성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고 움직임이나 침투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맨유가 리그 선두 아스널에 승점 2점 차로 뒤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갖췄다. 기회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성은 경기 후 비교적 관중은 평점 7점을 받았다.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맨유와 버밍엄시티의 경기 직후 선수별 평점에서 박지성에 대해 “그가 돌아온 걸 보니 좋았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매겼다.

두 번 연속 선발 출전한 이동국(29·미들즈브러)은 “득점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는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평점 5점에 그쳤다. 월드컵에 교체 출전한 살기현(29·풀럼)도 “활약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5점에 머물렀고 애스턴 빌라전을 뒀던 이영표(31·토트넘)는 “자주 잡혔다”는 평을 들으며 평점 5점을 받는 데 만족했다.



2일 오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버밍엄시티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맨유가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버밍엄전 플레이 인상적”

■ 퍼거슨 감독 극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부상에서 회복한 뒤 처음 선발 출전한 박지성(27)을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치켜세우며 극찬했다.

퍼거슨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박지성과 (중앙 수비수) 네만자 비디치가 오늘 경기에서 우리 팀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은 “부상으로 9개월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박지성이었기에 오늘 보여준 플레이는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안정환 갈테면 가라 연봉 삭감 변함없다”

■ K-리그 수원 삼성

선수 연봉 ‘거품배기’에 나선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안정환(32)과 재계약 협상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2일 “안정환과 우선협상 기간이 연말로 끝난 만큼 이제 선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단에서 제시한 재계약 조건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수원과 1년 계약을 맺고 7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안정환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25경기(컵 대회 포함)에 나서 5골에 그쳤고, 그나마 정규리그(15경기)에서는 ‘노골’로 부진했다. 이 때문에 수원은 연봉을 대폭 삭감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안정환의 에이전트는 선수가 원하는 몸값을 맞춰줄 수 있는 새로운 구단을 찾아 나선 상황이지만 높은 연봉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약 기간이 끝난 골키퍼 이운재(35)는 수원과 3년 재계약에 합의하고 조만간 계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구단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를 차례로 방문해 감독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표급 선수들의 몸 상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허정무 감독은 사전에 축구협회를 통해 K-리그 각 구단에 훈련 관전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팀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이번 코칭스태프의 전지훈련지 방문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허정무호는 투르크메니스탄전에 대비해 50명의 예비엔트리 가운데 경기에 나서게 될 최종엔트리 23명으로 정예멤버를 압축해야 한다.

한편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서는 박성화호는 6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이틀날 스페인 남부의 라망가와 마벨라를 거치면서 3주간 총 4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각과 조직력을 키운 뒤 28일 귀국한다.



■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 신년 “바쁘다 바빠”

구단 감독에 안부 인사 선수 컨디션 직접 체크

7회 연속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진출이라는 사명을 띠고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은 허정무호가 K-리그 구단 감독들 ‘골어안기’와 대표급 선수들 ‘보듬기’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허정무 감독(사진)을 비롯한 축구대표팀 코칭스태프는 구립 30일부터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부부동반으로 2박3일 가족 모임을 갖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새해 첫 날을 함께 맞은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첫 임무는 K-리그 구단들의 겨울 전지훈련 일정 파악과 내달 6일로 다가온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에 나설 태극전사들의 운곽을 그리는 것이다.

허 감독은 먼저 K-리그 구단 사령탑들에게 신년 안부인사를 직접 걸어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고 나섰다.

허 감독은 이어 코칭스태프와 함께 4일부터 수원 삼성을 시작으로 14개 K-리그

박태환 장거리 훈련 돌입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호주 전지훈련에서 본격적으로 장거리 훈련에 들어갔다. 시드니에서 박태환 전담팀을 인솔하고 있는 손석배 스피드 마케팅팀장은 2일 “(박)태환이가 현지 코치인 토니 쇼와 면담을 하고 장거리 훈련 프로그램을 달라고 공

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립 29일 출국해 시드니 올림픽아쿠아틱 센터에서 쇼 코치가 이끄는 현지 클럽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박태환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통한 몸 풀기에 주력했지만 쇼 코치로부터 장거리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대로 지구력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훈련 초점은 일단 자유형 1,500m를 여유 있게 헤엄치는 능력을 쌓는데 맞춰진다. 올림픽 개막까지 8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는 스피드보다는 지구력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박태환은 또 쇼 코치에게 입수 동작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박태환은 새벽과 오후 두 시간 매일 4시간씩 물속 훈련을 하고 웨이트트레이닝도 1시간30분을 소화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있다.

골프·윈도 회원권기대 전문기업

룩펠리 회원권

골프·윈도 시세인원	골프·윈도 시세인원
평주 3,500	무선비 1,800
남권 4,200	골프 2,400
클럽900 6,500	도움 3,000

성원 (062)351-0095

최요삼 장기 기증

어제 뇌사판정...호흡기 떼

서울아산병원은 2일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교 신경외과 교수)를 열고 프로복싱 경기 후 뇌출혈을 일으킨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해 온 최요삼(35·송민체육관)에 대해 뇌사라고 판정했다.

낮 12시30분부터 열린 회의에는 판정위원 9명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7명(신경과 전문의 1명 포함)이 참석했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오전 진행된 1, 2차 뇌사 조사 결과가 담긴 뇌사보고서와 뇌파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사를 담당한 의사 2명, 주치의 등을 모두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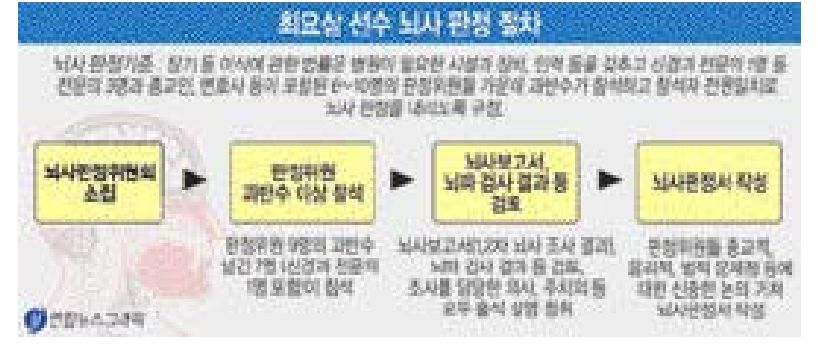
판정위원들은 의사들로부터 1, 2차 조사와 뇌파 검사 결과 모두 뇌사로 일치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종교적, 윤리적,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뇌사’ 사실이 명시된 뇌사판정서를 작성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병원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신경과 전문의 1명 등 전문의 3명과 종교인, 변호사 등이 포함된 6~10명의 판정위원들 가운데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뇌사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사는 식물인간과도 다르지만 법적 사망과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망(신장사)이 선고되려면 가족 동의를 얻어 인공호흡기를 끄고 장기 적출 수술 도중에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 절차가 끝나야만 한다.

뇌사는 실질적 사망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가족들이 호흡기를 끄는 데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최요삼은 구립 25일 서울 광진구민 체육센터에서 벌어진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헤리 아플(25·인도네시아)로부터 판정승을 거둔 뒤 뇌출혈 증상을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었다.



■ 최요삼 어머니 피끓는 모성

“아버지 기일 맞춰 호흡기 꺼달라 그래야 제삿밤이라도 먹이지...”

“결혼도 못한 만큼 제삿밤이라도 챙겨 먹여라던 아버지와 제삿날을 맞춰야 한다...”

최요삼이 2일 오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들은 애끓는 가슴을 억누르며 마지막 합의를 결정으로 괴로워 했다.

바로 사망시기를 결정하는 일 때문이었다. 뇌사 판정은 법적 의미의 사망과는 다르며 사망이 선고되면 가족 동의를 얻어 인공호흡기를 끄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은 하필 2일이 최요삼이 사망한 아버지 고 최성욱씨의 기일(忌日)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최성욱씨는 1996년 음력 11월25일에 지병 등이 겹쳐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애초 “결제사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뇌사 판정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2일 아버지 제사와 아들 제사를 같이 치르는 기구한 운명만은 피하고 싶다는 당연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끝까지 버텨온 모친 오순희씨는 이날 아들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앞두고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다. 오씨는 가족들에게 뇌사 판정 후 단처럼 최요삼의 사망 시간을 3일 오전 0시에 맞추라는 말을 꺼냈다.

오씨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더라도 장기도 가지 못해 괴롭이 하나 없는 요삼이가 제삿밤이라도 안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피끓는 모정을 토해냈다.

어머니의 이 말에 가족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오씨의 뜻에 따라 최요삼에게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3일 오전 0시에 꺼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사망 일을 아버지와 맞추고 싶다는 가족들의 간곡한 뜻 앞에 병원 측도 코앞으로 닥쳐온 장기 이식을 위한 수술 준비는 2일 오후 11시에 끝내놓더라도 인공호흡기 끄는 시기만은 날짜를 넘기기로 했다.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애써 냉정함을 유지해온 동생 경호씨도 형의 기구한 삶을 끝내야하는 잔인한 순간을 앞두고 이날 참고 참아온 울음을 토해냈다.

앞두고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다. 오씨는 가족들에게 뇌사 판정 후 단처럼 최요삼의 사망 시간을 3일 오전 0시에 맞추라는 말을 꺼냈다.

오씨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더라도 장기도 가지 못해 괴롭이 하나 없는 요삼이가 제삿밤이라도 안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피끓는 모정을 토해냈다.

어머니의 이 말에 가족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오씨의 뜻에 따라 최요삼에게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3일 오전 0시에 꺼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사망 일을 아버지와 맞추고 싶다는 가족들의 간곡한 뜻 앞에 병원 측도 코앞으로 닥쳐온 장기 이식을 위한 수술 준비는 2일 오후 11시에 끝내놓더라도 인공호흡기 끄는 시기만은 날짜를 넘기기로 했다.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애써 냉정함을 유지해온 동생 경호씨도 형의 기구한 삶을 끝내야하는 잔인한 순간을 앞두고 이날 참고 참아온 울음을 토해냈다.

‘김득구 비극’ 25년만에 또...

고(故) 김득구와 2008년 1월 2일 최요삼.

김득구는 1982년 11월1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레이 맨시니(미국)에게 14회 KO 패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나올 만에 사망했다.

김득구는 당시 심장파와 신장을 미국인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권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구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권투인장으로 치러졌다.

최요삼의 장례 절차가 권투인장으로 진행되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두번째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후 일본 챔피언을 지낸 한국인 복서 고 이동춘이 1995년 9월5일 도쿄에서 벌어진 일본 밴텀급 타이틀

재도전 경기에서 가와마쓰 세후에 패한 뒤 사망했지만 국민들 기억 속엔 김득구의 비극이 또렷이 남아있다.

프로복싱계는 최요삼의 뇌사 판정 소식을 듣고 25년 전 김득구가 쓰러졌을 때의 몸서리치는 기억을 떠올리며 장탄식을 뱉어내는 한편, 복싱 안전대책을 두고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복싱계 일각에서는 세계 복싱계가 김득구 사건을 계기로 세계타이틀전 라운드 횟수를 15회에서 12회로 줄인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만이라도 10회나 8회로 줄이거나 현재의 8라운드 대신 6라운드 이하를 사용하는 문제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